

광주·전남 여성 우울증 '남성의 2배'

광주 8.0%·전남 8.4% 우울감 경험...남성 4.9%·3.5%와 대조 엔데믹에도 전국 환자 100만명으로 5년 전보다 32.9% 늘어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광주·전남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감을 겪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끝났음에도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1일 광주일보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질병관리청의 '2022년 지역건강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우울감경험률'은 6.5%, 전남은 6.4%로 집계됐다.

우울감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다.

광주 우울감경험률은 지난 2013년 4.7%에서 10년만에 1.8%p 증가했다. 전남도 2013년 4.4%에 그쳤던 우울감경험률이 10년만에 2%p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증가폭이 컸다. 광주의 우울감경험률은 2020년 4.6%, 2021년 6.8%, 2022년 6.5%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남 또한 2020년 3.9%, 2021년 5.6%, 2022년 6.4%로 급

증세다.

광주의 경우 남자의 우울감경험률이 4.9%에 그쳤으나 여자는 8.0%로 차이를 보였다. 전남 또한 남자 3.5%, 여자 8.4%로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

우울증상유병률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우울증상유병률은 병원 등에서 진단한 우울증 산별도구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광주의 우울증상유병률은 2020년 2.9%, 2021년 3.7%, 2022년 3.7%로 늘어났으며, 전남은 2020년 2.1%, 2021년 2.3%, 2022년 3.1%로 광주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우울증 환자 수 또한 급증해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국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100만 744명을 기록했다. 2018년 75만 2976명에 비해 32.9%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일상이 되고, 취업·생활 등 현실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윤성 한마음정신과 원장은 "엔데믹 이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상과 경제적 어려움도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결혼생활, 가정사 등을 부정적으로 비춰주는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우울증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코로나 직후부터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해 평상시 통계보다 4-5배 높게 집계되고 있다"며 "나이가 젊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특히 20대는 경제난과 취업, 인간관계 어려움 등으로 쌓인 불안감과 무기력함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법을 나서서 연습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조기에 적절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정신건강 대응 인력이 없다

광주·전남 정신건강복지센터 79곳 담당자 없어

광주·전남 지역에서 서비스 담당자가 없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79곳에 달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담당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비례) 의원이 이날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전남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담당자가 없는 센터는 광주 15곳, 전남은 64곳에 달했다.

특히 광주·전남 센터에서 중독관리, 재난관리, 위기대응 항목 담당자가 거의 없고 위기대응 항목은 전남 광역센터를 제외하면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담당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각 지자체 5곳과 광역센터 총 6개의 센터가 있다. 분야별로 분류했을 때 자살 1곳(동구), 중독관리 5곳(동구, 서구, 남구, 북

구, 광산구), 재난관리 4곳(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위기대응 5곳(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이 각 분야별 담당자가 없는 센터에 해당했다.

전남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자살 항목에서 담당자가 없는 센터는 1곳, 정신건강증진 2곳, 아동·청소년은 3곳에 불과하지만 재난관리 14곳, 중독관리 20곳, 위기대응 2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 125곳, 서울 68곳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잘못된 사업" 지산IC 감사, 책임 규명조치 못했다

광주경실련 "구상권 청구도 없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지산나들목(IC)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미흡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지산나들목은 광주시가 77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년여간 개통을 못하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한 지산IC 개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는 책임규명조치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재발방지 대책조치 내놓지 못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정감사 결과 담당부서에는 주의, 관련 공무원에도 주의 또는 훈계 처분 수준의 요구만 있었다"며 "중징계 또는 고벌조치, 구상권 청구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결정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는 자세히 규명되지 않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잘못된 사업에 대한 감사 치고는 너무도 미흡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

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산IC 개설사업은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법원·지산유원지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나들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애초 오른쪽이었던 진출로를 왼쪽으로 바꾸는 바람에 현세 수습역원을 낭비하고도 개통조차 못했다. 광주시는 지산IC 좌측 차로 진출 및 가감속 거리 부족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사업비 49억원을 추가 투입해 진출로와 진입로를 각 1곳씩 단계별 추진하겠다는 추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 영어유치원 교습비 월 133만원

전국 평균 웃돌아...유아 사교육 시장 교육 불평등 유발

광주지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 평균 교습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3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비에는 피복·급식·차량·모의고사비 등 추가 기타 경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시 만안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의 영어유치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33만 2000원에 달했다.

전국 평균 월 교습비는 광주보다 9만 3000여원 낮은 12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교습비는 95만 8000원으로, 광주와는 37만 4000여원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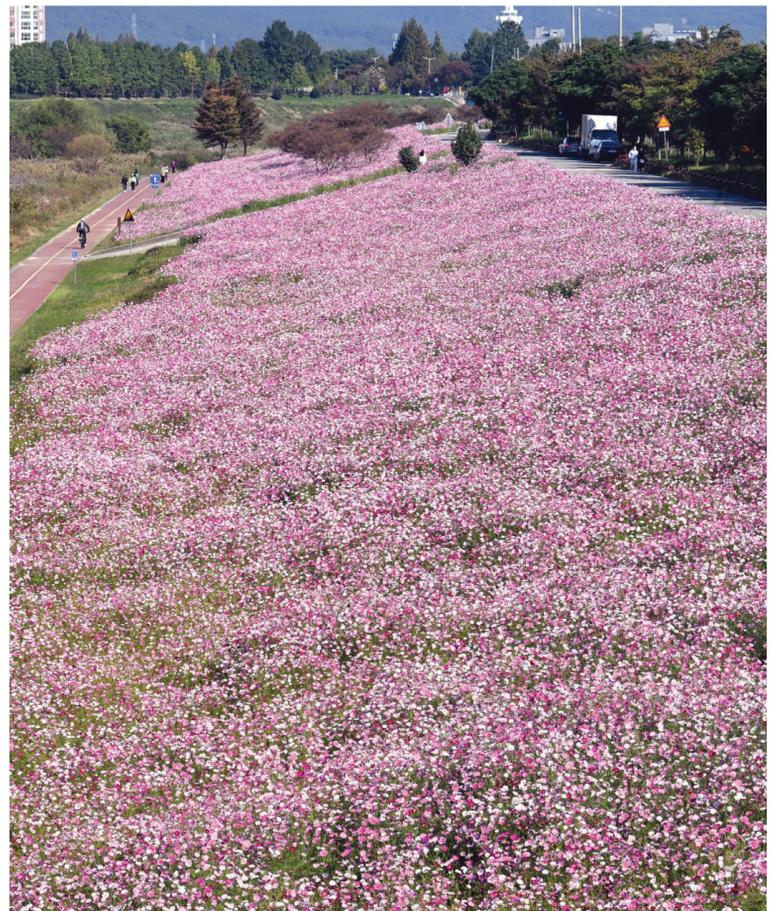
교습비 가격 또한 오르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월 평균 교습비는 2021년 107만원→2022년 115만 4000원→2023년 123만 9000원으

로 상승했으며, 전남 또한 2021년 70만원→2022년 94만 2000원→2023년 95만 8000원으로 2년 사이 가격이 36.8% 올랐다. 광주는 2021년, 2022년 교습비가 집계되지 않았다.

올해 광주에서 운영 중인 영어유치원은 21곳이며 원생은 1156명이다. 전남의 영어유치원은 5곳으로 원생 수는 총 149명이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코스모스 장관
광주시 북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조성한 광주시 북구 신용동 광추천변 '가정이 쉼터'에 코스모스가 만개해 주민들이 11일 산책을 하고 있다. /니명주 기자 mjna@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수목장(자연장)을 무료로 안치해드립니다.
(회원에 가입 한 분에 한함)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